



Mongolia

몽골사무소

몽골 식품 트렌드의 현주소 재래시장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에는 2017년 기준 150개의 크고 작은 장이 열리고 있다. 이마트, 노빙, 산사르 등 다양한 대형 마트가 매장 수를 늘리며 확장해가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들의 시장 이용률은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수도를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도 역시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고, 이곳에서 판매되는 다양한 식품들은 울란바토르에 위치한 시장을 거쳐 공급된다.

몽골 유통의 허브 '나랑탈 시장'

나랑탈 시장은 몽골에서 가장 큰 재래시장으로 수도를 제외한 지역에 납품되는 다양한 생활용품, 식품들이 이곳을 통해 유통된다. 자연스럽게 시장 인근에 다양한 식품유통 회사들이 모여 있다. 주차장을 지나면 공산품이 준비해 있는 시장 골목 뒤에 커다란 4층 메인 건물이 나오는데, 1층은 식품 및 생활용품, 2층 패션잡화, 3층 미용 및 서비스(수선 및 재봉 등), 4층 생활가전 및 푸드 코트로 구성돼 있다.

다른 재래시장에 비해 정돈돼 있지만 전체적으로 식품의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다. 가공식품에서 한국 식품은 유지류를 포함한 장류, 통조림, 라면 등을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한국산 신선 청과는 찾아볼 수 없다. 판매되고 있는 신선식품은 대부분 러시아, 중국, 폴란드, 미국산이다.

아파트 단지 인근 '바양주르흐 시장'

나랑탈 시장처럼 규모가 크고 시골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닿는 시장이 있다면, 아파트 단지 가운데 위치해 인근 거주 현인들이 쉽게 찾는 바양주르흐 시장도 있다. 다른 시장에 비해 규모는 작지만 식료품 시장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식품류를 주로 취급하고 있다.

크게 정육, 신선, 가공식품 코너로 나뉘며, 매장 1층의 절반이 정육코너로 큰 부분을 차지한다. 신선과일과 채소는 매장 한 가운데 길게 진열되어 있고, 신선식품은 주로 중국산을 취급하고 있으며 라면, 소스류, 김 등 다양한 한국산 가공식품도 취급하고 있다.

| 육류시장 |



Key Point

신선식품 업체들, 소비자 많은 재래시장에 주목해야

- 몽골의 주요 재래시장에서 한국산 가공식품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지만 신선식품은 거의 유통되고 있지 않았다. 최근 CU, 이마트 등이 몽골에 진출하면서 현대식 유통매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다양한 한국산 신선식품들이 이런 대형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판매되기 시작했지만 몽골의 많은 소비자들은 여전히 재래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다. 또한 울란바토르 밖으로 유통되는 식품들은 대부분 재래시장을 통해서 거래되고 있다. 대형유통매장들뿐만 아니라 재래시장에도 주목해야 하는 이유다.

전 세계 식료품 집합소 '미르꾸리 시장'

다양한 국가의 식자재들이 유통되는 미르꾸리 시장은 요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찾는다. 때문에 다른 시장에 비해 한국 식품의 취급률도 높다. 건물은 2개 구역으로 나뉘어 입구 쪽에는 가공식품, 안쪽에는 신선식품과 고기류가 위치한다. 뿐만 아니라 카페에서 사용되는 시럽, 원두 등도 구할 수 있다.

신선식품, 가공식품이 모두 판매되며 중국, 러시아산의 가공식품이 많지만 한국 가공식품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형마트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고기의 품질이 우수해 근처 주민들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자주 이용하는 재래시장이다.

| 진열된 가공식품류 |



도매시장의 메카 '바르스 시장'

미르꾸리 시장이 소매 시장이라면 울란바토르에서 규모가 큰 편에 속하는 전통시장인 바르스 시장은 도·소매 시장이다. 기차역 인근에 위치해 중국에서 온 물건들이 바로 도매로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 따라서 오전이나 이른 새벽에는 인근 교통이 정체될 정도로 붐빈다. 큰 규모의 도매시장답게 다른 시장들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 이곳에서도 한국산 가공식품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건물 내에 1~2평 남짓한 가판대가 옹기종기 모여 있고, 뒤편으로는 물류창고에서 끊임없이 상품을 싣고 내리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바르스 시장에 들어온 물건들도 울란바토르의 각 시장과 지역으로 다시 유통되는 구조를 가진다.

| 진열된 채소 |



멀어도 많이 찾는 '하르허링 시장'

하르허링 시장은 생활권과는 다소 떨어져 있지만, 취급하는 제품이 다양하고 가격이 저렴해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다. 과거에는 노천 시장이었지만 지금은 실내에서 운영되며 생활용품과 의류, 신발 등을 파는 메인 건물이 있고 메인 건물의 뒤편에 식품시장이 위치해 있다.

먼저 식품시장의 1층에는 유제품과 과일을 파는 시장이 열린다. 대부분이 수입 과일이고 8월에 몽골에서 재배된 수박이 들어올 예정이다. 지하 1층에는 채소시장과 곡류 시장이 있어 채소는 감자, 양파, 당근 등 일부 품목의 경우 몽골에서 재배된 채소들이 팔리고 있고, 채소시장의 반대편에 위치한 곡류시장에서는 쌀, 밀가루 등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을 판매하고 있다.

| 진열된 과일 |

